

보도시점 2023. 5. 30.(화) 12:00 (2023. 5. 31.(수) 조간)

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국정과제 현장 점검**안전을 보는 눈, 위험성평가 현장을 가다**

- 에이치디(HD)현대중공업의 원·하청 상생을 통한 위험성평가 실시사례 점검

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 26일(금) 오전 에이치디(HD)현대중공업(울산 동구)과 협력업체 (주)금영산업을 찾아 위험성평가 실시상황을 점검하고, 노사관계자를 만나 안전문화 및 원·하청 상생 관련 현장 의견을 들었다. 위험성평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「중대재해 감축 로드맵」의 핵심수단이다.

조선업은 고소작업·밀폐작업 등 높은 숙련수준을 요구하는 고위험 작업이 많은 업종으로, 경기변동에 따른 생산량 변동으로 협력업체 및 인력 교체가 빈번한 데 따른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. 특히, 최근 사망사고의 70%가 하청업체에서 일어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원하청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.

이날 현장점검은 에이치디(HD)현대중공업과 (주)금영산업의 현장 안전 활동인 ‘작업 전 안전점검회의(TBM; Tool Box Meeting)’와 위험성평가 운영 상황,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현황, 의견 청취 등으로 이어졌다. 노사관계자들은 위험성평가가 실제 현장을 잘 아는 근로자들의 참여로 재해 예방과 감축에 효과적이고 유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.

이 장관은 “안전에 있어서 만큼은 이번에 개편된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원·하청이 한 몸처럼 상생해야 한다.”라고 하면서 “원청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에 앞장서줄 것”을 당부했다. 아울러 “정부도 위험성평가 제도 확산·안착과 함께, 원·하청 상생 지원 확대 등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	책임자	과 장	금정수 (044-202-8920)
		담당자	서기관	김현아 (044-202-8923)

※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 현장취재와 연계

1 개요

- 일시: '23. 5. 26.(금) 09:10 ~ 12:00
- 장소: 에이치디(HD)현대중공업(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)
- 주요 참석자
 - (우리부) 장관, 대변인, 산재예방감독정책관, 울산지청장 등(9)
 - (안전보건공단) 이사장, 안전문화홍보실장, 산업안전실장 등(10)
 - * 근로복지공단, 산업인력공단 홍보 부서장 각 1명
 - (에이치디현대중공업) 한영석 대표이사, 노진을 최고안전보건책임자
 - ((주)금영산업) 최영태 대표이사
 - (기자단) 헤럴드경제 김용훈 기자(간사) 등(24)

2 주요 일정

시 간	내 용	비 고
09:10~10:0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대표이사·장관·기자단 간사 상호 인사말씀 ■ 홍보영상 시청, 사업장 현황,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개 ■ 기자단 질의응답 ■ 기념촬영 	본관 1층
10:05~10:4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위험성평가 현장작동 점검 	금영산업
10:45~11: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교육센터 소개 및 외국인근로자 교육 참관 	통합안전교육센터
11:20~12: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오찬 	기술교육원